

오피니언

테마칼럼

예술로의 초대

이대성 시사칼럼

김고영에 밝다

김제호 세상보기

영국 사람들의 집 고치기



이승우

2009년 9월, 런던 날씨는 아주 좋다. 8월도 좋았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바람이 좀 세게 불지만 오히려 상쾌한 느낌을 준다. 늘 흐리고 우중충하고 매일 비가 온다고 듣고 왔는데 두 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 비를 맞아본 적이 거의 없다. 이곳에 오래 산 사람들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한다. 조금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곧 빠 속으로 한기가 스미는 쓸시너스런 런던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그때 되면 소감이 변할 거라고, 영국은 6월부터 9월까지만 날씨가 좋다고, 운 좋게 좋은 계절에 맞춰온 거라고 겁을 준다. 그야 어쨌든 운 좋게 맞은 계절을 즐기면서 10월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과거를 부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정하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관습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 보자는 뜻이다.

다. 심지어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구비해 둔 가구를 내다버리고 새것으로 바꾸기까지 하지 않는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물건들을 웬만큼 쓴 다음에도 버리지 않고 오픈 마켓에 들고 나오는 이웃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버리고 없애고 새것으로 바꾸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면이 있다.

다만 집과 물건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전 세대를 유지하고 이어받는 대신 일단 단절하고 부정하고 그 위에 새로 세우려는 경향이 있다. 가령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과는 일단 단절부터 하려고 한다. 과거 떳떳하지 않은 정권이 있어서 단절과 청산이 중요한 과제였던 적이 있긴 했지만, 그런 과제가 사라진 다음에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단절과 부정의 전통만은 이어지고 있다고 할까. 이전과 다르다는 걸 내세워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의 이상한 강박증이 그 전 시대를 무조건 부정하고 파괴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가는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정과 단절, 파괴 위에 건설되는 그 새로운 것이 그다지 새롭지도 다르지도 훌륭하지도 않다는 데 있다. 심지어는 똑같은 내용의 건물을 도로 지어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좀 조금 바꾸거나 취지를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정도로 단절과 파괴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옛 대씩 사업을 이어가는 후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상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다는 뜻인데, 자랑스러운 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뜻과 일을 이어받는

후손이 조상을 자랑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아버지들은 은연중에 부정과 단절의 대상으로 의식화되어 왔다. 잘난 아들일수록 아버지는 부정해야 했다. 대개 아버지(들의 세대)는 공상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조선 왕조를 버렸다. 사정이 똑같은지는 않겠지만, 왕실의 후손들을 유기해 놓고도 제대로 된 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데 여태 힘들어하는 우리와 왕실을 유지하면서 민주 국가를 키워나간 영국은 비교가 된다.

있고 유지하는 것은 답습이고 퇴행이며 시대에 반하는 태도라는 생각,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과거를 부정하고 단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버릴 것과 부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또 무조건 과거를 받아들이고 이어가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혹시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오래된 것은 일단 부정하고 단절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처럼, 혹은 참된 진보인 것처럼 생각하는 관습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켜 보자는 뜻이다. 영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집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 안에서 산다. 오래된 과거의 유산인 왕실을 유지한 채 제도를 개선해가며 현대의 민주 국가를 운영해가고 있다.

〈소설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현지 스님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믿음이 있어야 좋은 법이 생겨나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진다.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함께하는 일이 지금은 힘들고 험한 가지밭길이라 해도 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이 IMF 때 정통 속에 간직해 둔 아기의 물 반지까지 들고 나왔던 것은 서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좋은 세상을 열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

일이 어디 있겠소, 낮에는 해 밑에는 달 아침은 동풍, 저녁은 서풍 이렇게 곱고 두 해주어야 하는 것이요" 하였다.

상생의 원리를 망각한 여야 노사 사회단체들은 이기적 주장으로 난투극, 장외투쟁, 촛불시위, 산보일배, 진압경찰, 용산참사, 조문정국 등 서럽고 힘쓰는 일만 국민들 마음속에 인식되어 믿음이 가지 않고 불안한 것이다. 다행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고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다.

시간과 믿음 갖고 지켜봐주자

나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게끔 하려야 한다. 앞서 했던 일들을 잊어버린 세월이라 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 말에는 일관성이 없고 많은 선임자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것이다. 또한, 세상은 시끄럽고 하는 일들은 몸과 마음 수고로울 뿐 편안할 일이 없다.

어느 나라에 부부신(神)이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다른 나라에 떠나면서 아내에게 나라를 잘 돌보라고 부탁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아내의 하늘에 올라 지상을 내려다보니 농부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있었다. 그는 비를 내리게 하고 돌아오는 데 장사꾼들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었다. 다시 동풍을 원하는 사람 서풍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여신은 돌아가 버렸다.

나라는 비도 안 오고 햇볕도 없고 바람도 없는 이상한 날씨였다. 모두 하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남편신이 돌아와 그동안 말을 듣고 웃으며 "세상에 쉬운

기고

김동울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본관에서 10인 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구 도청별 분과 해결책에 대하여 전격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광대 광주시장의 건의를 존중하여 당초 별관을 철거하기로 한 원설계안을 철회하고 별관을 보존하되 보존의 방법은 정부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어려웠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큰 획을 그은 발표였다. 지난해 6월

아닌 값진 의미를 지닌 기간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여론을 수용하여 정부정책을 절취하는 참으로 찾기 어려운 선례를 남기면서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했다. 정부의 전담건설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었고 이제 우리는 5월의 대중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찾아내야 한다. 용서와 화해로 논란의 후유증을 치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화해와 화합으로 '문화전당' 건립을

10일 문화전당 기공식을 하자마자 6월 24일부터 시작된 별관보존 논쟁으로 인하여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던 현안이 해결의 방향을 찾은 것이다.

돌이켜 보면, 1년3개월 동안, 보존과 철거의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 속에서 우리 광주의 부끄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한국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 놓았던 우리 광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깊은 자괴심 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자성의 시간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반복적 분열 속에서 희망의 교배를 놓치지 않고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상이한 의견을 통합하고자 하는 많은 아픔과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를 얻어냈지 않았는가 하고 스스로 위로도 해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동안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 또 한번 민주주의를 확충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러기에 1년3개월의 기간은 그냥 허비한 것이

'초·중 교과서 대물림 대책' 세워 낭비 막아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책을 너무나 함부로 다루는 듯 하다. 만약 학생들에 책을 깨끗이 쓰게 한 다음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하고, 새 책 대신 헌책을 받는 학생에게는 책 제작 비용의 70%까지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고, 종이를 사용함에 따른 환경오염과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학생들은 교과서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비닐로 책을 싸야 한다. 책을 볼 때는 책장을 접는 것조차 금지돼 있고 훼손하면 9천500원, 잃어버리면 두배인 1만9천원을 물어야도 돼 있었다. 그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교과서는 평균 5년 가까이 사용된다고 한다. 우리도 당연히 대물림 방지책과 함께 반납할 때 손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물림 방법을 세워 새책들이 버려지고 환경오염과 쓰레기 공해로 변하는 것을 막았으면 한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가정 해체' 막는 위탁정 늘어야

입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대신 맡아 키우는 위탁가정이 있다. 이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아이들을 기른 뒤 아이들을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니 실로 천사가 아닐 수 없다. 친정이 나오는데 그곳 6촌 친척 언니 중에 위탁가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언니는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다니다 딱 한 장정을 듣고 그 가정의 쌍둥이 자매를 데려왔다는 것이다.

가정정편이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라던

시설

전남 단체장 4명 중 1명이 '비리 낙마' 라니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 4기가 비리로 얼룩지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잇따라 중도하차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지방자치체가 되레 주민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뇌물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가 24일 군수직을 사임했다. 이로써 전남지역 22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려 7명이 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사퇴했다. 시장·군수 4명 중 1명꼴로 중도사퇴한 셈이다. 이는 전국 230곳의 기초단체장의 중도사퇴율 13.9%의 3배에 가깝다. 어찌 다 이치경까지 이르렀는지 부끄럽다 못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해당 자치단체 로선 '암 선고'나 다름없다. 단체장 공백으로 역점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등 지방행정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이다. 단체장 결석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1개 선거구당 수 억원의 혈세가 탕진되고 있다. 결국 단체장의 범법 행위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뇌물'의 늪에 쉽게 빠지는 이유로 우선 '돈 드는 선거문화'와 권위주의 현상을 들 수 있다. 거액의 공천 헌금에다 '밀빚진 돈'이나 다름없는 선거비용, 여기에 단체장의 막강한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본전 심리와 이권 개입이 뇌물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군수 4명 중 1명꼴로 중도사퇴한 셈이다. 이는 전국 230곳의 기초단체장의 중도사퇴율 13.9%의 3배에 가깝다. 어찌 다 이치경까지 이르렀는지 부끄럽다 못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해당 자치단체 로선 '암 선고'나 다름없다. 단체장 공백으로 역점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등 지방행정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無等鼓

볼을 힘껏 부풀리고 올라올라춤을 추는 약동, 그러나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만화 '짱구는 못 말려'의 주인공 짱구다. 아니 원래 일본만화이니 '크레용 신짱'의 노하라 신노스케 라고 해야 맞겠다.

그 만화를 그렸던 일본 인기만화가 우스이 요시토가 며칠 전 등산중 실족 사망했다. 외신에 물어온 우스이의 사망소식은 작잠은 한국의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만화지만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민만화에 가까울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

하지만 우스이의 사망소식을 안타까워만 하기에는 쓸쓸함이 남는다. 그것은 그가 그린 만화내용 때문이다. 원래 '짱구는 못 말려(크레용 신짱)'는 성인용이다. 20대 젊은 주부를 타깃으로 아한 내용이 담겨 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서 아동용으로 변질됐다. 만화는 무조건 아동용이라는 무지함이 빛어낸 일이다.

매년 일본 학부포 협회가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프로' 1위를 수차례 차지할 만큼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

90년대 당시만 해도 등급제가 느슨해 많은 일본 만화가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로망 폭력물인 '건담'을 비롯, '카우보이비밥' '이누야샤'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유해하다는 평가(일본어로 만화)들이 TV와 만화책방을 뒤덮었다.

최근에는 이런 일본만화가들이 청소년들의 로망으로까지 변지는 추세다. '건담 마니아', '카우보이비밥 오타쿠'니 하면서 망가를 모르면 대화를 못할 정도라고 한다.

글로벌시대에 일본만화든, 미국만화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은 이의가 없다. 하지만 당장 주위만 둘러보아도 일본만화 때문에 부모-자식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식을 벗어난 폭력과 외설의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점막해 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김원환어른매체부장 kih8@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시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1부 2200-612 (F A X 227-0118)	경정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9500)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다자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회 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